

일본 국제수산 월간동향

2024. 04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

목 차

1. NPFC 콩치 프레임워크 설정, 엄격화가 급선무3
2. 지중해산 양식 참치 40% 저렴4
3. 태평양 고등어, 이번 분기 기준 30% 감소5

- 북태평양수산위원회(NPFC)에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것에 합의.
- 북태평양에서 공치 어획량은 2000년대까지 대부분 일본이 차지했으나, 최근 대만이나 중국 등이 공치잡이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다가 해양의 환경변화로 자원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.
 - 일본 국립 연구개발법인 수산 연구교육기구에 따르면 북태평양의 조사 해역에서 공치의 추정분포량은 2003년 597만 톤에서 2023년 109.2만 톤으로 1/6 가량 감소했음.
 - 역사적인 불어가 지속되는 가운데, 국제적인 한도 내에서 어획량을 제한해 왔으나, 아직 자원량 회복은 하지 못했음.
 - 이에, 일본은 엄격한 어획 기준 설정을 요구해왔고, 이번 NPFC에서 새 규칙이 합의되었음.
 - 비록 침체된 자원의 실태와 공치 프레임워크의 설정이 동떨어져,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평이 있으나, 이번 프레임워크에서는 과학적인 의견을 도입했기 때문에, 수산청 간부는 충분하지는 않지만, 그래도 한 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.

※ 출처: 미나토신문¹⁾

1) 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2176> ('24년 04월 30일 검색)

□ 냉동 필레(fillet)가격이 적당하다는 느낌으로, 외식 및 대량 구매

-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지중해산 양식 참다랑어 반입이 절정에 달함. 이 기간에, 8,058톤의 냉동 참다랑어 필레가 수입되었음.
 - 스페인이 2,097톤, 몰타가 2,690톤을 기록하고 있음.
- 원재료 가격은 전 시즌에 비해 약 40% 감소하고, 상업환경은 개선되었음.
-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지중해산 양식 참다랑어 필레의 반입량은 약 2만 2,200톤이 될 예정으로, 지난 시즌에 급증한 매입 가격에 비해, 내 판 가격이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침체하여, 도매업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.
- 지중해산 양식 참다랑어는 중국에서의 수요 증가에 따라 원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지만,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소비 의욕이 저하되었음.
- 이번 시즌(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)은 일본 주도로 가격이 형성되었지만, 다음 시즌에는 중국이나 한국의 수요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.

※ 출처: 미나토 신문²⁾

2) 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2082> ('24년 04월 30일 검색)

□ 감소한 태평양 고등어 자원 때문에 이뤄진 자원평가 수정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

- 수산청은 태평양 참고등어·망치고등어의 금어기(7월~ 내년 6월) 총허용어획량(TAC)에 대해 의견교환을 해, 전어기 대비 31% 감소한 35.5만톤을 제안함.
- 수산 연구·교육기구는 2023년 자원평가를 설명하며, 참다랑어의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향 조정되었음을 알렸으나, 참가한 어업자로부터 최근의 어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음.
- 수산청은 어업인이 불만을 제기한 자원평가에 대해, 0세 어류의 높은 가입량과 어획량의 불일치가 환경변화의 영향일 가능성을 지적하며, 정확성을 위해 수정한 것이라 설명함.
- 수산청은 북태평양수산위원회(NPFC)에서 새롭게 합의한 참고등어 보존관리조치에 대해서도 설명, 중국의 어획 제한이나 보고 규칙을 설정해 수집한 어획 데이터를 일본의 자원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음.

※ 출처: 미나토신문³⁾

3) 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2351> ('24년 04월 30일 검색)